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위한 새로운 색상과 소재들

2022 년 블랑팡은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의 새로운 파생 모델들을 선보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레드 골드와 23 등급 티타늄을 통하여 스타일에 변화를 준다. 이 두 소재는 10 년 가까이 바티스카프 라인에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장식한다.

1953 년 최초의 현대 다이버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가 출시된 후, 블랑팡은 다이버들을 위한 이 중요한 타임키퍼 도구의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1956 년에 제작된 바티스카프는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훌륭한 사례 중 하나이다. 피프티 패덤즈보다 작은 사이즈와 캘린더가 특징인 이 워치는, 시계 애호가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포티한 시계를 착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는 2014 년에 현대 바티스카프 라인에 합류했으며 블랑팡의 "어반 다이버" 모델을 장착한 최초의 컴플리케이션이다. 매뉴팩처는 현재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중 하나를 수용하고 있다. 블랑팡의 칼리버 F385 는 지난 30 년 동안 세계 최초였던 블랑팡 크로노그래프 라인의 최신 제품 중 하나이다.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블랑팡의 세련된 수직 클러치 디자인으로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크로노그래프 초침의 갑작스러운 점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크로노그래프의 시동, 정지 및 재설정 제어는 칼럼 휠을 통해 수행되므로 푸셔의 부드럽고 편안한 작동이 가능하다. F385 는 5Hz 의 주파수에서 올리는데, 이는 낮은 주파수에 비해 시간 유지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있는 관성 조절 밸런스 휠이 있으며, 구조와 가벼움이 월등한 크로노메트릭 성능을 보장한다.

블랑팡이 선보인 두 개의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각각 라인의 상징적인 미적 코드에 새로운 차원을 선보인다. 블루 다이얼의 레드 골드 모델은

손목에서의 과감한 존재감이 돋보이며, 23 등급 티타늄은 엔트러사이트 다이얼로 신중함을 기했다. 최근 블랑팡이 소장하고 있는 23 등급 티타늄 (일명 5 등급 ELI (Extra Low Interstitials))는 사용 가능한 티타늄 중 가장 순수한 유형이다. 특히 시계 제조에 사용되는 "표준" 티타늄보다 적은 양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소량의 감소는 금속의 파손 및 부식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킨다. 23 등급 티타늄은 변함없는 강도 외에도 항알레르기성 물질이며 생체 적합성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소재이다.

레드 골드 모델과 티타늄 모델의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선버스트 패턴과 크로노그래프 카운터에 달팽이 모티브 그레이징으로 깊이감과 대비감을 연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신형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프레임은 현대 바티스카프 라인의 시그니처인 세라믹 인레이의 단방향 회전 베젤이다. 레드 골드 버전의 블루 인레이는 광택 마감과 세라골드™ 눈금을 자랑하며, 티타늄 시계의 엔트러사이트 인레이는 새틴 브러싱 처리하였고 리퀴드메탈™ 눈금을 특징으로 한다.

두 모델의 케이스 지름은 43mm 이고 30bar(대략 300m)까지 방수 가능하다. 그리고 다이얼 색상에 맞춘 나토(NATO) 혹은 세일클로스(sailcloth) 스트랩이 매치되며, 레드 골드 버전의 세일 캔버스 스트랩은 핀과 폴딩 버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티타늄 버전의 모델은 티타늄 브레이슬릿과 함께 매치해 선보인다.